

“휴식 공간은 필수”... 주 52시간이 바꾼 여의도 풍경

PC-오프제·휴게시설 확충 등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마무리
근무 밀도↑... 직원들 불편함도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서울 여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퇴근 시간이 빨라지면서 금융가의 풍경도 달라진 것. 하지만 그만큼 근무 밀도는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권사는 직원들이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휴게 공간을 넓히는 등 복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은행·증권 등 금융사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던 만큼 금융투자업계는 52시간 근무 정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시스템을 재정비해 52시간 도입 준비를 끝마쳤다.

우선 NH투자증권은 PC-오프(PC-Off)제를 도입해 퇴근 시간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도



한양증권 직원 휴게실.

/한양증권

록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지난달부터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정례화 했다.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KB증권 등도 PC-오프제는 물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추가근무 및 야근을 되도록 지양하는 분위기다. 이들 증권사는 퇴근 시간 전에 방송 또는 사내 메시지를 통해 퇴근 시간 공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휴게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에 따르면 “52시간 근무제로 업무 밀도가 높아진 만큼 제대로 쉬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굳이 회사 밖에 나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회사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 화장실을 개선하는가 하면 직원 휴식 공간을 새로 조성했다. 1층에는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만들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한양증권도 인력 확충만큼이나 직원 휴식 공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층마다 넓은 휴게시설을 만들고, 커피 머신을 구매해 회사 안에서 고품질의 커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대우, SK증권은 회사 내



SK증권 직원 휴게실.

/SK증권

로봇카페를 입점시켰다. 직원복지와 더불어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점심시간 회사 주변은 ‘커피전쟁’을 방불케할 만큼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점심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카페에 자리가 없어 여기저기를 전전했는데, 회사 내에 좋은 원두로 만들어주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커피 관련 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52시간 도입에 불편함을 느끼는 직원도 적지 않다. 더 일하고, 더 많은 성과급을 받고 싶은 직원도 많을뿐더러 근무 밀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

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추가 근무가 필수적인 부서인데도 그걸 법으로 막아 버리니 회사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 깔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라며 “오히려 52시간이 일하는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장을 다녀오면 비행시간까지 근무시간에 반영해 출장 다음날 대휴를 쓰고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비행시간을 근무시간에 넣지 않아 시차적응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핀테크 성장하면 일자리 되레 늘어난다”

핀테크 산업확대·대응전략 토론회

일자리 창출 문제 주로 대두돼
생성 방향 파악해 방안 마련해야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다만 일자리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필요하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7일 ‘핀테크 산업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존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파생된 (핀테크 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업무도 인공지능 등 핀테크가 할 수 있지만 단순화된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핀테크 산업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공포심을 자



7일 국회도서관에서 핀테크 산업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나유리 기자

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핀테크를 이용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를 통해 기존 업무가 단순화 될 수 있는 만큼 핀테크 활용능력(업무숙련도)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지적했다. 그는 “경영인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으로 순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업무개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존 일자리 감소, 파트타임 임시직 하청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생성되는 방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7년 핀테크 등 기술진보가 일자리 감소와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작업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핀테크 등 기술 혁신에 따라 기업간 노동자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정책, 직업훈련정책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재화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임법조사관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업-노동자간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자-노동자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성장이 가

속화해 일자리는 확대될 수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저소득계층,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되레 금융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라진 점포 600곳 중 90% 이상이 영국의 지역별 평균소득 1만7600파운드 이하인 지역이었으며, 새로 영업을 개시한 신규점포의 8분의 5는 부유층 지역에 밀집됐다. 지역중소상공인의 경우 공용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 보호 차원에서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점포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헌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과 “최근 핀테크 일자리 교육훈련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며 “핀테크 성장추세에 맞춰 기업과 노동자,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美 달러 강세에... 한 달 만에 외환보유액 12억 달러 감소

약 4040억달러 보유... 2월부터 하락

미 달러 강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12억달러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9년 4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40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2억2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4055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2월부터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3월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늘었지만 지난달 다시 하락했다. 미 달러 강세에 엔화,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741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3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인 SDR도 31억8000만달러로 1.8% 줄었다.

반면 예치금은 193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1.1% 증가했다. IMF에 대

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인 IMF포지션(25억1000만달러)은 1.59 늘었고 금(47억9000만달러)은 전월과 같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053억달러)은 세계 9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3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6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9위였던 인도의 외환보유액(4129억원)은 같은 기간 105억달러나 증가하면서다.

1위는 중국(3조988억원)이 차지했고 2위는 일본(1조2918억원), 3위 스위스(8088억원)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

미혼남녀 44%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불가능”

미혼남녀 10명 중 4명 이상이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31일~9월 13일 만 25~39세 미혼남녀 3002명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한

다’는 응답은 45.1%였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대답도 44.0%로 비슷하게 나왔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답은 10.7%, 기타 0.2% 등이었다.

성별로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 47.8%, 여성 41.5%로 남성이 많았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응답은 남성 42.1%, 여성 46.6%로 여성이 많았다.

/박민용 기자 parkju7854@